

2023년 12월 31일 01주간

제24-01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01과	교리를 왜 배워야 할까요?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1장 6~8절(신약p.301)
암송구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신약p.301)
찬 송	찬송가 86(통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93(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 본 문 이 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다른 복음’이 교회 내에 편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가진 성격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교회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개인에게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듯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나요? (갈 1:6)

갈라디아서 1장 6절

-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 보충설명

하나님은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고후 5:19-20, 살후 2:14).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롬 1:6).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그들이 ‘속히 떠나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신영어성경(New English Bible)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너무 빨리 돌아섰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떠나다’라는 의미 헬라어 ‘메타티테미’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한 군인, 정치나 철학에서 편을 바꾸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2.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 1:7)

갈라디아서 1장 7절

-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변하게 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메타트레포’는 ‘뒤집다’, ‘반대 방향으로 바꾸다’, ‘다른 것으로 비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자신들의 일을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시켜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고, 요동시키고, 두려워하게 하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복음을 조작하는 것은 항상 교회를 괴롭히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경고합니까? (갈 1:8)

갈라디아서 1장 8절

-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보충설명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심판의 상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왜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8절은 성도들이 복음 메시지의 온전함을 분별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핵심 진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묵상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인지 모른다. 언젠가는 쓸데가 있겠지 싶어 집에 잔뜩 쌓아 놓은 잡동사니나 서류 뭉치처럼, 우리의 시간도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정리가 필요하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간만 아니라 시간도 낸다.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가장 울창한 나무가 되어 우리 모두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씨앗을 보고, 밭을 사고, 시간을 내야 한다. ‘급히 지나쳐 버리느라’ 이 모두를 잃어서는 안 된다. 공간과 시간을 내라. 씨앗을 보라. 주목을 연습하라.”  
(『작아서 아름다운 한계를 끌어안는 너른 삶』. 애슐리 헤일즈, IVP)

---

#### 나눔

-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 기도

-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소서.

#### 적용

-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다른 복음’을 이겨내고 극복합시다.